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발을
씻기 위하여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성령강림 후 제8주 】 인도 1부 : 이재훈 목사
 (2부 찬양: 91. 슬픈 마음 있는 사람) 2부 : 이범석 목사

- 전 주 반주자
-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-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
- ▲ 경배의 찬송 10.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
-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주님,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,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.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. 우리의 순종을 재료 삼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빚어 주십시오.

주님, 이상 기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지구 한편에서는 불멸 더위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. 다른 한편에서는 때아닌 폭설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. 주님,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.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- ▲ 위로의 말씀 시118:5,14 인도자
- ▲ 교 독 문 60. 시편 139편 다 함께
-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- 2부 대표기도 안홍숙 장로
- 2부 응 답 송 반주자
- 2부 찬 양 73.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 함께
- ▲ 성경봉독 창 3:8~11 1부:인도자/2부:임당재 집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 봉 독 자
 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 다 합 께

찬 양	I. 한 사람	마중물 찬양대
	II. 존귀 영광 찬양	청파 찬양대
말 씀	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	김기석 목사
거듭 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286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	다 함께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·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
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주님께서 부르실 때, 숨지 마십시오.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.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.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.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거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.

다 함 께 : 아멘. 주님의 눈길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, 충만한 은혜로 감싸시며, 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겠습니다.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대어, 새 힘을 얻고,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
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다음주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1부	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김재홍
2부	김기석	윤성중	김현주	이재훈

-  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- 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- 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- 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파교회)

